

바른미래 분당...호남 중심 제3신당 급물살 타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이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모여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홍으로 파열음을 거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당기획단을 가동해 창당을 준비해온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하태경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변혁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혁은 연내 '개혁적 중도보수'를 기치로 한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올드 보수'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는 150석을 넘겨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의원은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또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 발기인 2113명 가운데 원내에서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발기인에서 일단 빠졌다.

비당권파 '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 연내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 신당 창당

바른미래 당권파·대안신당·민평당

내년 총선 살아남기 '제3지대론' 모색 주승용 "내년 1월까지 창당 가시화"

이에 대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그분들은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계속해야 하므로 신당에는 단계적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지만 안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현실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군소 야당들의 '제3지대론'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결집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소 야당 내부적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데다 국민적 신망을 모을 수 있는 확고한 구심점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박우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부적으로 거의 매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결국 외부에서 누가 깃발을 드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며 "원탁회의 구성 등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측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분당 수순을 주목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위기일수록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며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제3지대에서 모여 국민적 열망을 담은 용광로가 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광주 평균 1억 7000만원·전남 2억 2700만원

전남 제한액 전국서 가장 높아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 7000만원·전남이 2억 2700만원이다. 전남 제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광주에서는 동남율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율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어 동남갑 1억6100만원, 서구갑 1억6100만원, 북구갑 1억7800만원, 북구를 1억8000만원, 광산갑 1억6800만원, 광산을 1억7200만원이었다.

전남에서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2억9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여수를 1억6000만원이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가 변동률을 적용·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확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광주는 북구율이 1만 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율이 5987통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는 장흥이 9556통으로 가장 많고 여수율이 6179통으로 가장 적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통화...북미대화 유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연합뉴스

최근 한반도 상황 엄중 인식 공유

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 간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최근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30분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언제가 때가 되면 알게 되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 5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에이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22번째다. 또 두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한 것은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74일 만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